

존재의 감각, 시간의 여운...낮선 침묵 속 울림을 전하다

리일천 기획초대전, 오는 9월9일까지 드영미술관

정서의 파동·침묵의 진동 응축된 '순간의 감각'포착
익숙한 듯 낯선 '살아있는 지각' 찰나의 의미 담아내

무심히 지나친 공간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잊힌 기억이 다시 움직인다. 사진작가 리일천은 이처럼 의식의 틈 사이 남겨진 공간의 인상에 주목한다.

흑백 프레임에 담아낸 존재의 감각과 시간의 여운이 'Phenomenon Space-Chaosmos of Healing'이라는 주제로 드영미술관을 채운다. 전시는 오는 9월9일까지 미술관 1·3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의 주요 작업 33점이 출품된다.

전시 제목인 'Phenomenon Space'는 감각의 층위에서 발생하는 공간, 즉 존재가 머무르고 흔적이 감도는 장소를 의미한다. 여기에 'Chaosmos'는 질서와 혼돈, 구조와 흐름이 공존하는 우주적 조화의 개념을 더한다.

작가는 이 두 개념을 통해 일상의 틈 속에

서 되살아나는 감각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치유의 가능성을 사진으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는 그가 오랜 시간 탐구해온 철학적 질문을 시각 언어로 전개한 작업이다. 작가는 삶 속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공간들 중에서도 유독 깊이 각인되는 장면들에 주목해왔다.

집과 길, 도시와 건축물 등 물리적 공간은 우리 삶의 궤적과 함께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지지만, 모두가 기억에 남는 것은 아니다. 예기치 않게 마주친 장면이 오히려 더 깊이 뿌리내리기도 한다.

작가는 바로 그런 '순간의 감각'을 사진에 포착한다. 문과 계단, 벽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 같은, 인간의 흔적이 지워진 듯한 정적의 공간을 연출이나 조작 없이 담아낸다.

흑백 모노크롬 이미지로 표현된 화면은



'The windows of the Future'

단순하고 고요해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서의 파동과 침묵의 진동이 응축돼 있다.

작가의 작업은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의 '지각현상학'과도 맞닿아 있다. 메를로-퐁티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순한 시각적 관찰이 아니라, 몸 전체를 통해 세계와 관계를 맺는 감각의 흐름이라고 봤다. 리일천의 사진은 이러한 '살아있는 지각'의 순간을 담아낸다.



'Phenomenon Space III(현상공간 3)'

사진 속 요소들은 결코 정지해 있지 않다. 문이 열리지 않아도 빛은 스며들고, 계단은 어디론가 연결돼 있다. 천장의 장에 어른거리는 구름의 움직임부터 경계면에 쌓인 시간의 결과지. 이 모든 요소는 마치 그 공간을 견고 있는 듯한 몰입을 유도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감각과 존재의 울림을 되살리며, 익숙한 세계를 낯설게 바라보도록 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제안하는 치유의 여

정이기도 하다. 질서와 혼돈, 존재와 부재가 교차하는 공간 속 감각의 회복과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성찰하는 시간을 펼쳐 보인다.

작가는 "사진에 나타난 시간의 흔적은 미묘한 시간과 공간의 순간성과 영원성을 보여주며, 우주와 나와의 관계를 사색하게 한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일상의 각박한 현실에서 빛어지는 상처를 치유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빛과 색채, '식물의 향기'로 피어나다

이정록 개인전, 26일까지 서울 갤러리 나우

생명력 넘치는 자연과의 교감을 시각화해 온 사진작가 이정록이 올해 신작을 들고 돌아왔다. 이번 전시는 그가 새롭게 시도한 '식물의 향기'를 주제로, 감각의 경계를 확장한 실험적 작업 14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수년간 이어온 로케이션 헌팅과 야간 촬영 방식에서 더 나아가, 이번에는 '향기'라는 보이지 않는 요소를 사진이라는 시각적 매체에 담아냈다.

작가는 수년간 이어온 로케이션 헌팅과 야간 촬영 방식을 넘어 이번에는 지속광 조명을 활용해 자연이 내뿜는 생명력을 한층 섬세하게 포착했다.

순간광 대신 색을 머금은 지속광을 사용한 이번 작업은 풍경 위에 은은하게 감긴 빛을 통해 향기와 기운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 생명체 간의 소통 방식을 탐색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선 식물이 특정 화학물질을 통해 주변 생명체와 소통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후각과 감성의 접점을 작품화했다. 이는 관람자가 사진을 통해 향기를 '느끼는' 감각적 체험을 유도한다.



'Private Light 27'

길게는 4시간 넘게 로케이션을 반복했다. 특정 장소를 오랜 시간 관찰하고, 그곳의 다양한 얼굴을 이미지로 중첩하는 방식은 작가 특유의 '관찰자적 시선'을 깊이 있게 담아낸다.

이정록 작가는 "식물의 존재는 빛을 입힌 향기와도 같았다"며 "그들이 내뿜는 존재의 향기를 채색을 통해 시각화하는 작업은 곧 우리의 소중한 만남을 기록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시는 오는 26일까지 서울 갤러리 나우(강남구 언주로 152길 10)에서 열린다.

촬영 과정 역시 변화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골로 작업실을 옮긴 그는, 작업실 인근 자연을 수년간 관찰하며 짧게는 1시간30분, 길게는 4시간 넘게 로케이션을 반복했다. 특정 장소를 오랜 시간 관찰하고, 그곳의 다양한 얼굴을 이미지로 중첩하는 방식은 작가 특유의 '관찰자적 시선'을 깊이 있게 담아낸다.

/최명진기자

'디카시 대중화'...담론의 장 열린다

광주디카시인협회, 15일 '무등 디카시 포럼'

디카시의 창작 원리와 현장 경험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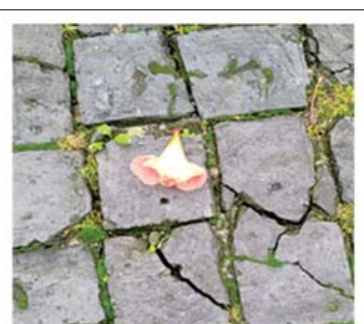
광주디카시인협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미로센터 3층 미로극장 1관에서 '무등 디카시 포럼'을 개최한다.

디카시는 디지털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미지에 짧은 시적 문장을 덧붙이는 새로운 형태의 영상-문자 융합 문학으로, 최근 생활 밀착형 문학 장르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필 광주디카시인협회장이 '디카시 원론적 이야기'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하며 이어 광주디카시인협회 소속 패널리들이 '디카시 현장의 소리'를 주제로 각자의 창작 철학과 경험을 공유한다.

발표자로는 강만·권준영·홍영숙·이선근·김성룡 시인이 참여하며, 각각 디카시에 대해 '상상 유희', '삶의 길동무', '선물 상자', '시대의 답', '멈추면 보이는 길'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간다.

광주디카시인협회는 2021년 창립 이후 매월 2회 정기 창



1인 시위 - 조필

쫓긴 광장에 누워있는 너를
마냥 지나치지 못해
메인 가슴 들어잡고
다시 꽃필 화음을 그려본다
이름을 환기하는 눈물겨운 몸짓

작 모임을 운영하며 청소년 공모전, 정기 전시,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디카시 문학의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조필 회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디카시가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광주매일신문, 프레스존, 호남교육신문이 후원하고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동구평생학습관이 협력한다.

/최명진기자

엄마마음으로 돌보아 드립니다~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공백기준 :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다문화,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서비스 유형	가형(75%이하), 나형(120%이하) 다형(150%이하), 라형(200%이하) 마형(200%초과)
시간제서비스	연 960시간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영아종일제서비스	월80시간 ~ 200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1회 2시간 이상 신청

우리 아이 양육 파트너 '아이돌보미 모집'

신청방법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https://care.idolbom.go.kr>)회원가입 → 모집공고확인 → 지원신청

광주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Gwangju Metropolitan City Child care Wide Area Support Center

대표번호 : 1577-2514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자동 연결)

홈페이지 : idolbom.go.kr

“여행의 모든 순간, 캐논으로 완성하다”

캐논코리아 주식회사

캐논라이브

[호주 퀸즐랜드 여행 편]

2025 여름 캐논 정품등록 프로모션

이벤트 대상 제품을 구매하시고 정품등록 후 이벤트 응모 및 승인 완료된 모든 고객님의게 100% 사은품 증정!

제품 구매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8월 31일(일)

정품등록 및 이벤트 응모기간

2025년 6월 23일(월) ~ 9월 8일(월)

캐논스토어

캐논코리아총판

062)522-2000

062)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로2로 54 (금호월동1층 139호)